

CHINESE TITLE

제목 : 不要让未来的你, 讨厌现在的自己
가제 : 미래의 당신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저자 : 特立独行的猫 독불장군 고양이
발행일: 2014년 8월 1일
분량 : 230
장르 : 자기계발 / 에세이



<내용소개>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청춘을 향한 메시지

1천만 팔로워, 조회수 2억에 달하는 블로거 '독불장군 고양이'의 베스트셀러!

중국 온라인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겁게 화제되는 글쟁이가 있다. 바로 시나블로그를 운영하는 '독불장군 고양이'가 그 주인공이다. 예리하게 현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중심적 삶을 추구하여 많은 젊은이가 공감하고 있고, 900만명 이상의 팔로워와 2억이 넘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도시에 남을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미안 네가 갖고싶은게 너무 많아...'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라' 와 같은 주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을,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준다.

<저자소개>

독불장군 고양이

본명은 조성이며 시나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호소력있는 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예리한 글로 현실을 지적하고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누구나 상담해주듯 따뜻하게 설명한다. 저자가 운영하는 도우반(인터넷 사이트) 회원은 7만명에 달하고 블로그 팔로워는 9백만명을 돌파했다.

<목차>

추천사 : 죽지 않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다

프롤로그 : 내일의 좋고 나쁨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결정된다

1장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즐기며 살라

하루하루를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위해 노력을 지불하라. 그래야만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고 꿈은 이루어진다.

- 대도시에 남을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 견디는 것이 최고의 성품이다
- 스스로를 개혁해야 얻고싶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2장 자신에 대한 믿음

어디에 있든, 어느 경지에 이르든 그대를 믿어야 한다. 당신은 가장 뛰어난 당신이라는 것을. 건너지 못할 난관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 첩첩산중을 지나 돌이켜볼 때 지나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 막연함이야말로 청춘의 본질이다
- 그대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부모의 잘못이다

...

3장 꿈은 최고의 신앙이다

꿈이 있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힘이다. 믿으시라, 꿈은 최고의 신앙이다. 꿈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으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흘린 땀은 달콤한 꿀로 변할 것이다.

- 고독은 꿈을 가진 누구나가 체험하는 것이다
- 자신의 마음에게 장기휴가를 주라
- 사직하고 싶다면 우선 지갑부터 보라

...

4장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원하는 인생을 실현하라

내일의 좋고 나쁨은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결정된다. 미래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마음을 따라가는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만 하고싶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당신만의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다.

- 생명의 임무가 따른다
- 평생의 삶으로 꿈을 이루어라
- 천천히 가는 것이 비교적 빠른 길이다

...

에필로그 십년후의 당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가제 : 어린이와 노인
저자 : 차이쑤이첸
발행일: 2014.11
분량 : 28 쪽
장르 : 아동그림책



<내용소개>

어느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가 모두 자신의 어린시절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책에 펼쳐집니다. 원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 나와 같은 유년기를 겪었지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모두들 다 다른것일까요? 3, 30, 33, 65 그리고 70세. 나이가 우리 3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세월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문을 볼 때 글자가 잘 보이는 것,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걸음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 이런것이 소위 늙었다고 하는것일까요?

3살배기 어린아이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엄마의 어릴적 모습은 어땠을지, 모두들 나처럼 말도 안들어 매를 맞고, 밥먹기 싫어하고 밤을 무서워했을까? 아이들의 끝없는 상상의 세계가 시간을 뒤집고 세상의 기준을 제거해버려 아빠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를 동일한 시간대에 놓아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아도 사랑은 영원한법이지요.

<저자 소개>

차이쑤이첸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판타지를 좋아하고 본인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앙미술대학 판화학과를 졸업하였고 재학기간중 아동심리와 관련된 판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그녀의 첫번째 작품입니다.

<본문이미지>

